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유형별 특성 및 효과분석

양 희승 · 임 채윤*

〈 목 차 〉

1. 서 론
2. 연구모델과 방법
3.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유형별 특성
4. 산업유형별 해외이전의 효과
5. 결 론

1. 서 론

199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특성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활동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인 기업의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이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이다.

기업의 해외로의 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공동화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산업발전 과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저부가가치 제품의 해외생산이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에 야기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기업이 해외로 대거 이전함으로써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무역수지의 악화가 초래되면서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공동화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산업생산, 특히 제조업 생산 전반이 위축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정의와 경제적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¹⁾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 해외이전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증대에 직접적인 또는 보완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7), 김시중(1995), 김준동(1996), 한국은행(1997), 한도숙(1996), 한국무역협회(1994))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수출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으며, 따라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최근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중 어떤 산업 또는 업종이 해외에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에 관한 통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품·기술수명주기상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 업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의 발전과정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와 논의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별 현지투자와 수출간의 관계 또는 거시경제지표를 사용하거나, 일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한 부분적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역의 증대 또는 감소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산업별 수준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1) 산업공동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시중(1996)을 참조하기 바람.

해외이전의 원인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목록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업종별로 세분화시키고 이를 다시 각 업종의 특성별로 유형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이전의 특성을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생산요소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다각화 또는 글로벌경영전략, 기술획득, 국제분업 등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의 동기와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된다.

둘째,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다루게 됨으로써 특정 산업 또는 업종에서 공동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산업 전체적으로는 수출·입이 증가 또는 유지됨에 따라 산업별·업종별 효과가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국내산업 변화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업종별로 그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모델과 방법

2.1 문헌고찰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첫째, 왜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발생하는가?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현지기업에 비해 문화, 언어,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는 원인에 대해 1) 독점적 우위이론, 2) 내부화 이론, 3) 절충이론, 4)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이론등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²⁾

둘째,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1) 시장확보형, 2) 생산효율확보형, 3) 자원확보형, 4) 기술확보형으로 나누어진다.³⁾

셋째,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산업간의 관계는 국제무역수지, 산업생산, 그리고 고용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조동성 1989, 이문봉 1989, Caslin 1987)

상기에 열거된 세가지 측면 중 처음 두가지 논의는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목표라는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확보된 기술·생산·시장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에 입지상 경쟁우위가 있을 때 해외이전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Dunning 1981) 즉, 생산입지의 해외이전은 기업이 국내에서 축0적한 기술적·시장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에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비교우위가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국가라는 환경에 속한 기업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면 모두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기업이 외부환경(특히, 국가라는 범주내에서)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는 생산제품 및 생산방식, 목표시장 등 기업이 처한 해당 산업의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며, 이러한 외부환경에 대한 반응이 기업의 전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역시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기술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vitt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OECD를 통해 일반화된 산업의 기술혁신 특성은 Tidd 등에 의해 기업차원으로 구체화되었는데, Tidd등은 기업이 속한 기술케적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이 기업의 성장경로를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Pavitt 1984, OECD 1996, Tidd, Bessant, Pavitt 1997) 즉, 동일한 기술케적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적 특성은 유사한 성장경로를 거치게 되지만, 기업간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라는 것이다.

2) 이론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구,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론, 에코노미아, 1984를 참조하십시오.

3)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목표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정구현, 국제경영학, 법문사, 1990을 참조하십시오.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구는 일견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불리한 생산입지적 여건속에서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기업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특성을 갖는 기업이 왜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기업의 해외이전 특성과 아울러 관심의 주요대상이 되어 온 것은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기반에 미친 영향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특히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산업공동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Tain-ty Chen and Yi-peng Chen 1995) 아울러 산업공동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수 수행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이론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Singh(1977)의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영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기업(Hara 1989) 및 산업내부(Kotabe and Omura 1989)에서의 구조고도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유지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산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으로 활용된 국가, 산업, 기업의 기술적 수준 및 환경적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제조업 해외이전의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연구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즉, 제조업 해외이전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공동화와 관련된 산업별 생산의 증감, 고용의 증감, 그리고 사업체의 증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모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업종별 해외이전의 원인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이전 현황을 세분화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의 산업분류는 산업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황 및 특성에 대한 통계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의 각 기업별(또는 해외사업별) 사업내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도록 재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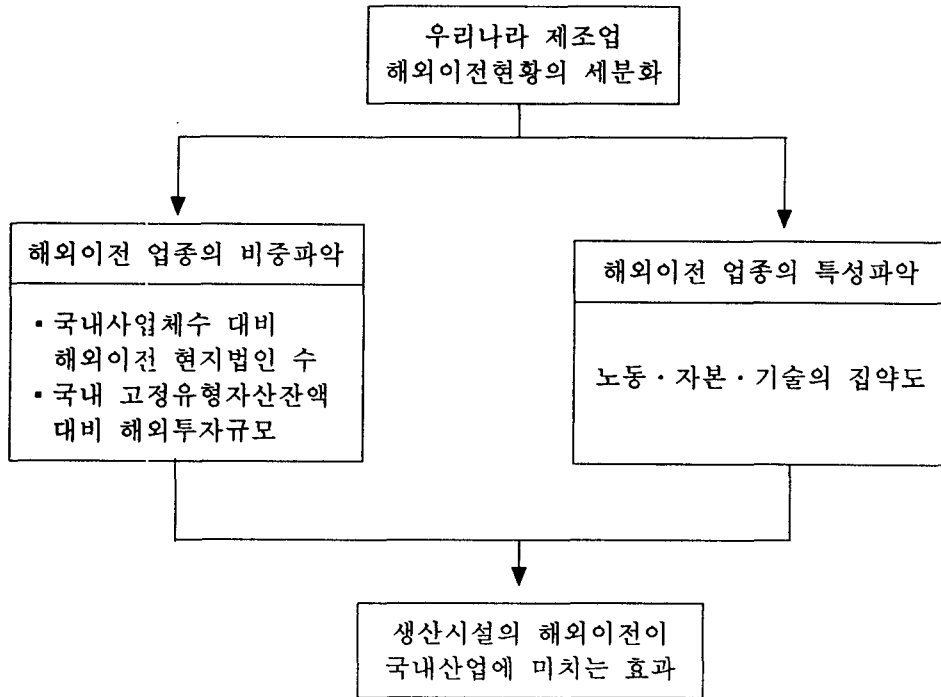
둘째,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업종별로 해외이전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의 수, 그리고 투자규모를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업종의 해외현지법인과 투자규모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해당업종의 신규기업창출과 신규투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업종별 해외투자를 국내 산업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해외이전의 비중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이전의 현황을 유형화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셋째, 세분화된 해외이전 업종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이전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업종별 특성은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 등이며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업종별로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넷째, 세분화·유형화를 통하여 재구성된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이전 형태를 토대로 국내 산업 생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업종별 특성 및 해외이전의 비중으로 유형화된 그룹의 생산 및 고용의 성장율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갖는 업종에서 산업공동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 파악하였다.

위의 네가지 과정을 도식화하여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델



2.3 자료의 측정 및 분석의 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이전 형태를 업종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업 해외이전 현황을 재분류하였다.

첫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해외현지법인 현황(1995. 6)” 중 개별기업이 신고한 사업내용을 이용하여 표준산업분류 3단위에서 5단위에 이르기 까지 세분화 시켰다. 예를 들면 사업신고 내용이 “자켓”인 경우 “의류”(표준산업분류 3단위)로 포함시켰으며, 해외이전 현황에서 의류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말”(표준산업분류 5단위)의 경우 의류업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세분화시켰다.

둘째, 표준산업분류상 독립된 분류코드를 갖고 있지만, 해당 업종의 해외진출빈도가 적은 경우 상위 업종에 포함시켰으며, 해외이전빈도가 극히 적은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해외진출 업종은 <표 1>과 같으며, 1995년 당시 제조업 해외진출 건수 3,017건 중 약 73%에 해당하는 2,193건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 해외이전 산업별 업종분류

업종구분	주요품목
섬유·의복	- 천연섬유(107건, 2억달러) - 화학섬유(54건, 1.2억달러) - 일반의류(452건, 3.5억달러) - 내의류(16건, 0.27억달러) - 염색가공(20건, 0.04억달러)
신발·가죽	- 가죽의류(67건, 0.27억달러) - 신발(110건, 1.4억달러) - 가방(80건, 0.47억달러) - 피혁(53건, 0.67억달러)
석유·화학	- 합성수지(76건, 0.89억달러) - 기초화합물 및 발포제, 첨가제(24건, 0.26억달러) - 접착제 및 윤활유(10건, 0.05억달러) - 화장품 및 세제(17건, 0.12억달러) - 도료, 안료, 염료(20건, 0.22억달러) - 의약(21건, 0.25억달러) - 고무제품(23건, 0.3억달러) - 플라스틱제품(65건, 0.5억달러)
비금속광물	- 레미콘(17건, 0.5억달러) -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21건, 1.6억달러) - 기타 건축자재(25건, 0.1억달러)
1차금속	- 철강 관련 제품(19건, 0.2억달러) - 비철금속(10건, 0.06억달러) - 건축용 및 주방용 금속제품(24건, 0.30억달러)
조립금속	- 반도체 및 관련 부품(21건, 0.78억달러) - 전자부품(125건, 1.4억달러) - 컴퓨터 및 부품(32건, 1.4억달러) - 통신기기 및 부품(34건, 0.69억달러) - 영상음향기기 및 부품(93건, 6.9억달러) - 가전기기(36건, 0.61억달러) - 컨테이너(22건, 0.63억달러) - 보일러(11건, 0.05억달러) - 전구류(16건, 0.11억달러)
기계장비	- 일반기계(49건, 0.51억달러) - 기계요소, 금형, 주물(35건, 0.05억달러) - 정밀기기(31건, 0.53억달러) - 전기전자기계(17건, 0.36억달러)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60건, 0.76억달러)
기타제조	- 악기, 문구, 운동구, 장식용품(115건, 1.0억달러) - 봉제완구, 가발(188건, 1.04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6.을 재구성

업종별 해외진출 현황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업종별 해외투자 건수(현지법인의 수)와 해당 업종의 국내 사업체 수를 비교하는 한편, 각 업종별 해외투자금액과 국내유형고정자산 잔액(토지, 건설계정 제외)을 비교함으로써 각 업종별 해외이전과 국내 산업간의 상대적 비중을 산출하였다. 업종별 국내 산업기반 대비 해외이전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업종별 국내산업기반 대비 해외이전 비율

(단위: %)

	주요품목	해외직접투자건수/국내 사업건수	허가금액/ 유형고정자산
섬유·의복	① 천연섬유	2.8	2.2
	② 화학섬유	47.7	3.7
	③ 의류	7.1	18.2
	④ 내의류	2.2	6.2
	⑤ 염색가공	1.3	0.77
신발·가죽	⑥ 신발	9.0	33.4
	⑦가방	17.4	22.5
	⑧가죽의류	18.0	41.5
	⑨피혁	16.3	8.8
석유·화학	⑩합성수지	14.8	1.0
	⑪도료, 염료, 안료	7.6	1.6
	⑫화장품	10.4	0.2
	⑬의약	11.9	1.9
	⑭고무제품	3.7	1.3
	⑮플라스틱	1.3	0.7
비금속광물	⑯레미콘	2.8	2.2
	⑰시멘트 및 콘크리트	1.2	3.7
1차금속	⑱철강	2.0	0.1
	⑲비철금속	1.6	0.1
조립금속	⑳반도체 및 관련부품	10.1	0.6
	㉑전자부품	13.4	2.5
	㉒컴퓨터 및 부품	2.2	8.4
	㉓통신기기 및 부품	4.2	4.0
	㉔영상음향기기 및 부품	5.7	12.6
	㉕가전기기	3.0	3.2
	㉖전구	3.1	2.5
	㉗컨테이너	15.5	17.7
	㉘보일러	17.4	6.9
기계·장비	㉙일반기계	0.7	3.5
	㉚기계요소	6.7	5.7
	㉛정밀기기	1.3	1.7
	㉜전기전자기계	1.5	2.9
	㉝자동차 및 부품	2.1	1.1
기타제조	㉞봉제완구	41.3	45.2
	㉟가발	35.6	29.8
	㊱양말	8.5	6.9
	운동용품	54.3	73.3
	㊲낚시용품	6.6	5.3
	실내 장식품	62.5	166.0
	㊳악기	4.8	11.0
	㊴장신구	8.7	5.4
제조업		4.0	3.0

자료 : 1.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2.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를 중심으로 재구성

둘째, 제조업 전체 해외투자 건수와 국내 사업체수, 그리고 제조업 전체 해외현투자 규모와 국내 유형고정자산 잔액의 비율을 산출하였고, 제조업 해외현지법인 비율과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각 업종의 해외현지 법인 및 투자 비율의 다소를 판단하였다. 제조업 각 업종별 해외이전 비중은 <표 3>과 같다.

<표 3> 업종별 국내 산업기반 대비 해외이전의 비중

법인수비율 투자비율	제조업평균 이하	제조업평균 이상
제조업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섬유 • 염색가공 • 고무제품 • 플라스틱 • 레미콘 • 철강 • 비철금속 • 가전기기 • 전구 • 일반기계 • 기계요소 • 양말 • 낚시용품 • 정밀기기 • 전기전자기계 • 통신기기 및 부품 • 자동차 및 부품 • 장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 화학섬유 • 도료, 염료, 안료 • 화장품 및 세제 • 의약 • 반도체·관련부품 •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의류 • 보일러 • 약기 • 컴퓨터·관련부품 • 영상·음향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 신발 • 가방 • 운동용품 • 가죽의류 • 피혁 • 컨테이너 • 봉제완구 • 가발 • 실내장식품

해외진출 업종의 생산 및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 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OECD는 노동집약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산원가중 인건비의 비중을 들고 있으며, 기술집약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들고 있다. 한편, 규모집약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OECD(1996))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업종의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한국은행(1997)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하였으며, 각 업종의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 판단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해외이전 업종의 생산·기술적 특성 지표 및 판단기준

업종별 특성 지표	분류 기준
업종 i의 노동집약도	업종 i의 인건비/업종 i의 생산비
	제조업 전체 인건비/제조업 전체 생산비
업종 i의 자본집약도	업종 i의 기계장치 수/업종 i의 종업원수
	제조업 전체 기계장치수/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업종 i의 기술집약도	업종 i의 연구개발비/업종 i의 매출액
	제조업 전체 연구개발비/제조업 전체매출액

<표 4>의 기준을 통해 해외진출 업종을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은 ①내의류, ②일반의류(가족의류 포함), ③변압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④운동용품, ⑤가족 및 가방(가족, 가방), ⑥기타제조업(봉제 완구, 가발, 양말, 운동용품, 낚시용품, 실내장식품, 장신구), ⑦염색가공, ⑧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⑨신발, ⑩자동차 부품, ⑪플라스틱, ⑫레미콘, ⑬컨테이너, ⑭보일러 업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둘째, 기계장비율로 살펴본 자본집약도의 경우 ①비누, 세제, 화장품, ②철강, ③합성수지, ④비철금속, ⑤가전기기, ⑥전구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셋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으로 살펴본 기술집약도는 ①도료, 염료, 안료, ②고무제품, ③의약, ④통신기기 및 부품, ⑤의료, 광학 및 정밀기기, ⑥일반기계, ⑦화학섬유, ⑧반도체, ⑨컴퓨터 및 부품 등의 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넷째, 제조업 평균수준의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기술집약도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으로는 ①천연섬유, ②영상음향기기 및 부품, ③전자부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레미콘, 컨테이너, 보일러의 경우 통계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조립금속제품의 경우 높은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업종에 포함시켰다.

5) 가전기기 및 전구의 경우 통계자료 미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라인 생산방식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집약업종으로 분류하였다.

6) 반도체, 컴퓨터 및 부품의 경우 통계자료 미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제품혁신이 일어난다는 면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분류하였다.

3.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유형별 특성

3.1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진출 특성

노동집약산업의 해외현지법인 비중 및 해외투자비중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국내인건비의 상승을 들고 있다.(Roman and Puett(1983)) 즉, 국내적인 임금의 상승이 더 이상 해당제품의 국내 생산이 국제적인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하며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업지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5>를 살펴보면, 노동집약산업의 모든 업종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국내 임금상승이 미치는 효과가 업종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일한 생산방식을 갖는 산업내에서도 서로 다른 제품수명주기를 갖기 때문이다.

<표 5> 노동집약산업의 국내 산업대비 해외투자 현황

투자비율 법인수비율	제조업평균 이하	제조업평균 이상
제조업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기계 • 자동차부품 • 플라스틱 •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 레미콘 • 염색가공 • 양말 • 낚시용품 • 장신구 	
제조업 평균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 운동용품 • 신발 • 피혁 • 가방 • 가죽의류 • 봉제완구 • 가발 • 실내장식품 • 컨테이너

본 연구에서는 제품수명주기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부가가치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즉, 국내 산업생산이라는 동일한 환경하에서 서로 다른 제품수명주기를 갖는 업종은 부가

가치의 증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1991-1996년 기간 중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과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표 6>과 같다.

<표 6> 해외이전 노동집약산업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 증가율(1991년~1996년)

업종	평균부가가치 증가율(%)	업종	평균부가가치 증가율(%)	업종	평균부가가치 증가율(%)
의류	11.7	피혁	6.17	실내장식품	3.3
내의류	19.18	가방	8.4	플라스틱	20.49
염색가공	18.3	봉제완구	-16.96	전기·전자기계	20.85
가죽의류	-3.84	장신구	7.77	자동차 부품	20.4
신발	-10.17	가발	-0.36	제조업 전체	16.66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호

노동집약산업중 해외이전이 활발히 진행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의 부가가치 증가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의 경우 1991~1996년 기간중 평균 부가가치증가율은 0.283%였으며, 그렇지 않은 업종의 경우 17.0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그룹간에 부가가치증가율의 차이는 99%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국내 산업생산으로는 더 이상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을 수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 비중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증가율의 차이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	0.105	1	0.105	16.559	0.001
Within Group	8.252E-02	13	6.347E-03		
Total	0.188	14			

주: 통계자료의 미비로 양말, 낙시용품, 운동용품,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레미콘 업종은 제외되었음.

3.2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진출 특성

자본집약산업의 해외현지법인 비중 및 투자 비중은 <표 8>과 같다. 노동집약산업과는 달리 자본집약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국내사업체수 대비 해외현지법인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유형자산 대비 해외투자의 규모는 매우 작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 현황

투자비율 \ 법인수비율	제조업평균 이하	제조업평균 이상
제조업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 비철금속 • 가전기기 • 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및 세제 • 합성수지
제조업 평균 이상	-	-

여기서 다수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집약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해외이전 자본집약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증가율

업종	평균부가가치증가율(%)	업종	평균부가가치증가율(%)	업종	평균부가가치증가율(%)
철강	10.58	가전기기	2.66	화장품 및 세제	25.71
비철금속류	12.84	전구	20.17	합성수지	13.42
제조업 전체			16.66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호

자본집약산업 중 대표적인 해외진출 업종인 합성수지(76건)의 경우 1991~1996년 기간동안 부가가치 증가율이 타 업종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체수에 비해 다수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세제·화장품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증가율은 제조업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제품수명주기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해외이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분석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해외이전 자본집약산업을 해외이전 비중(업종별 해외현지법인수 대비 국내 사업체수)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후 각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증가율(1991~1996년)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 비중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증가율의 차이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	8.545E-3	1	8.545E-3	1.477	0.291
Within Group	2.315E-2	4	5.787E-3		
Total	3.169E-2	5			

<표 10>에 따르면 해외이전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비중의 다소에 따라 국내산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은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과 국내산업간의 관계와는 또다른 양상으로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의 효율성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며, 여기서 공정의 효율성 및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입되는 자본재의 우수성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 산업생산을 위한 투입 자본재의 대체과정에서 발생하지만 화장품 및 세제, 합성수지와 같이 특정 자본재의 도입과 기존 자본재의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유희 또는 노후설비의 해외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작투자의 형태로 해외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3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진출 특성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이전 비중은 <표 11>과 같다.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노동집약·자본집약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집약산업에서의 부가가치증가율, 자본집약산업에서의 유희 또는 노후설비의 퇴출이 해외이전을 촉진하는 반면,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신제품개발을 통해 꾸준히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자본재의 우수성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작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진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uemmer(1997))

첫째, 시장적 지식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다. 이러한 해외진출 유형을 본사연구소 활용형 해외진출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외 각지의 시장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형태로써 모국의 중앙연구소로부터 해외연구소로 제품·공정개발에 관한 기술적 정보가 이전된다.

둘째,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한 본사연구소 확장형 해외진출의 경우이다. 즉, 전세계의 경쟁기업들과 대학에서 창출된 다양한 제품·기술지식의 습득을 위한 해외진출형태로써 해외연구소에서 획득한 기술적 정보가 모국의 중앙연구소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표 11>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이전 현황

범인수비율 투자비율	제조업평균 이하	제조업평균 이상
제조업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기기 • 고무제품 • 일반기계 • 통신기기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료·염료·안료 • 의약 • 반도체·부품 • 화학섬유
제조업 평균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부품 	-

1995년 해외투자원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본사연구소 확장형에 해당하는 대선진국 진출은 반도체 및 부품, 컴퓨터 및 부품, 의약 업종을 제외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산업중 해외원지법인 수가 가장 많은 화학섬유 및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성장과정을

거쳐오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외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기술집약산업의 업종별 해외진출 현황(1995년 기준)

	대전전국		대 개발도상국	
	건 수	금액(백만달러)	건 수	금액(백만달러)
정밀기기	5건(16.1%)	24.8(46.7%)	26건(83.9%)	28.3(53.3%)
고무제품	1건(4.3%)	0.18(0.6%)	22건(95.7%)	30.2(99.5%)
도료·염료·안료	1건(5%)	0.9(4.1%)	19건(95%)	20.9(95.9%)
의약	5건(23.8%)	5.82(23.6%)	16건(76.2%)	18.8(76.4%)
일반기계	6건(12.2%)	19.6(39.9%)	43건(87.8%)	31.3(61.5%)
통신기기 및 부품	6건(17.6%)	13.9(20.3%)	28건(82.4%)	54.6(79.7%)
컴퓨터 및 부품	10건(31.3%)	57.2(40.5%)	22건(68.7%)	84.1(59.5%)
반도체 및 부품	10건(47.6%)	19.3(24.6%)	11건(52.4%)	59.1(75.4%)
화학섬유	1건(1.9%)	0.5(0.4%)	53건(98.1%)	119.9(99.6%)
계	45(15.8%)	142.2(24.1%)	240(84.2%)	447.2(75.9%)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6

4. 산업유형별 해외이전의 효과

4.1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 효과

1990-1996년 기간동안 해외이전이 발생한 노동집약산업의 각 업종별 국내 사업체수, 생산, 고용규모의 증가율은 〈표 13〉과 같다.⁷⁾ 노동집약산업중 해외이전의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사업체수, 고용,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7)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공업통계조사의 최근 통계는 1996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다.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해외이전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기반에 비해 그 비중이 적은 업종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을 뿐 사업체수, 생산액등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룹간 평균차를 분석하는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3〉 해외이전 노동집약산업의 국내산업구조의 변화(1991-1996년도)

(단위: %)

	업종	사업체수 증감률	고용 증감률	생산액 증감률
해외이전 비중이 높은 업종	의류	7.8	-2.1	24.2
	가죽의류	-7.9	-26.2	-4.1
	신발	1.2	-25.8	4.9
	피혁	-6.3	-11.1	-0.1
	가방	4.8	-5.8	1.3
	봉제완구	-20.3	-41.4	-14.8
	가발	-4.2	-20.2	-9.8
	운동용품	-10.2	-23.7	-6.0
	실내장식품	-11.8	-24.4	-20.8
	컨테이너	13.4	-24.7	-1.1
해외이전 비중이 낮은 업종	내의류	7.3	-2.6	10.4
	낙시용품	2.8	-3.3	9.9
	시멘트	0.5	-0.11	8.8
	플라스틱제품	8.7	3.1	14.8
	전기기기	9.6	3.9	19.9
	레미콘	7.8	2.8	12.3
	자동차부품	8.0	4.8	21.0
	양말	3.5	-7.1	12.3
	염색가공	6.7	0.36	18.3
	장신구	2.8	-4.8	6.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호

분산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이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의 국내 고용 및 생산은 99% 이상의 유의수준을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집약산업에서 해외이전이 활발히 진행되는 업종의 경우 국내 고용 및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 사업체 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생산거점을 구

축한 기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본사의 기능을 국내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14〉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df: 1, 18)

	Sum of Square	Error SS	Mean Square	Error MS	F	Sig.
사업체수	417.698	1011.14	417.698	56.174	7.43	0.14
고용	2060.45	1348.96	2060.45	74.942	27.49	0.000
생산	1632.625	1186.45	1632.625	65.914	24.77	0.000

4.2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 효과

1991-1996년 기간동안 해외이전이 이루어진 자본집약산업의 업종별 국내 사업체수, 고용, 생산액 변화율은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해외이전 비중의 다소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 사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산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산업의 설비대체 과정에서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촉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7〉은 위와 같은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제조업 해외이전 비중의 차이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기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시장경쟁의 심화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업체의 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16〉 해외이전 자본집약산업의 국내산업구조의 변화(1991-1996년도)

(단위: %)

	업종	사업체수 증감률	고용 증감률	생산액 증감률
해외이전 비중이 높은 업종	철강	5.0	1.4	12.7
	비철금속	-18.0	-1.5	14.7
	가전기기	-19.3	-5.2	3.7
	전구	-11.7	6.4	21.4
해외이전 비중이 낮은 업종	화장품 및 세제	-13.1	1.1	14.0
	합성수지	-14.3	-0.6	19.2

〈표 17〉 자본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df: 1, 4)

	Sum of Square	Erorr SS	Mean Square	Erorr MS	F	Sig.
사업체수	7.267E-6	8.614E-3	7.267E-6	2.153E-3	0.003	0.956
고용	9.377E-4	3.748E-2	9.377E-4	9.369E-3	0.100	0.768
생산	1.675E-3	1.739E-2	1.675E-3	4.348E-3	0.385	0.568

4.3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이전 효과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집약산업에서의 국내 산업기반의 변화는 〈표 18〉과 같다. 여기서는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해외이전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그렇지 않은 업종에 비해 국내 산업기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기술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에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생산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 및 부품, 컴퓨터 및 부품 업종의 산업생산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 설치된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이 이루어지는 한편, 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의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18〉 해외이전 기술집약산업의 국내산업구조 변화(1991-1996년도)

(단위: %)

	업 중	사업체수 증감률	고용 증감률	생산액 증감률
해외이전 비중이 낮은 업종	의료·정밀기기	10.1	2.1	15.3
	고무제품	6.7	2.2	13.4
	일반기계	-2.8	-9.3	0.5
	통신기기 및 부품	4.8	0.01	23.6
해외이전 비중이 높은 업종	도료·염료·안료	4.3	3.1	14.8
	의약	2.2	-0.9	11.5
	반도체 및 부품	13.3	11.1	46.5
	화학섬유	-3.2	10.2	19.3
	컴퓨터 및 부품	8.8	5.0	37

해외이전 비중에 따른 국내산업기반 변화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기술집약산업에서의 국내 산업기반은 해외이전과는 상관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집약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지배받기 보다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선택과정이며, 오히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성장 뿐만아니라 국가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기술집약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df: 1, 6)

	Sum of Square	Erorr SS	Mean Square	Erorr MS	F	Sig.
사업체수	12.00	162.59	12.00	27.19	0.4430	0.530
고용	67.8545	164.4	67.65	27.4	2.476	0.167
생산	406.12	1138.21	406.12	189.70	2.14	0.194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생산시설의 해외로의 이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다수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갖는 업종에 집중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이미 국내시장에서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조건이 나은 해외의 제3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본집약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산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서는 저부가가치제품의 생산을 전담하고 국내 모기업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만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기술의 습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경쟁우위를 갖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조업 해외이전의 특징과 아울러 각 산업유형별로 국내 산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고용 및 산업생산의 공동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제제품수명주기 측면에서 국내에서 더이상 경쟁력을 갖을 수 없는 업종을 해외로 퇴출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기술인력의 고용을 위한 기능·기술의 교육훈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본집약산업의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 유희·노후설비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적합한 해외시장정보의 제공, 현지기업과 협력 알선등 정보제공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보다는 개

별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현지시장의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집약산업 해외이전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생산시설의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산업 고유의 생산·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저기술 노동집약산업에 국한되어 매우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해외진출의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 경쟁력 구축을 위한 국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진출만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기반의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직면하고 있는 IMF 상황에서처럼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진출이 기업의 전략적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산기업의 설비 및 자본재가 해외에 염가판매된 결과, 고정자산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특히 후발국의 기업들이 국내 도산기업의 생산설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즉, 후발국의 기업들의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으로 판매되거나 우리나라로 역수입됨으로써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의 대체효과로 인해 국가적으로 산업생산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해외이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와 지역별 시장변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기업차원에서 꾸준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2차통계자료인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거점이전을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본 연구의 한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투자와 국내산업간의 통계자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분류의 분류체계 보다는 제품특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두 통계자료간 일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현황에 대한 산업분류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여진 제조업 해외진출의 특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 위치한 현지법인 20개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제외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명확한 산업분류를 통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인적·물적으로 체화된 경영 노하우, 제품기술, 생산기술등의 무형자산이 해외생산 거점을 통하여 어떻게 현지국에 확산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제조업의 해외이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효과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공동화의 관점에서 제조업 해외이전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해외이전을 통한 국가간 기술이전 효과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1. 김시중,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2.
2.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2.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분석」, 1997. 4.
4. 이문봉,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 「세계경제동향」, 산업연구원, 1989. 5.
5. 이찬구,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론」, 에코노미아, 1984.
6. 정구현, 「국제경영학」, 법문사, 1990.
7. 조동성, 「국제경영학」, 경문사, 1989.
8.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호.
9.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 1994. 4.
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11.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12. 한국은행,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1997. 3.
13.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통계월보」, 1997. 6.
14. 한도숙,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15. Caslin, Terry, De-industrialization in the UK, In Howard Vane and Terry Caslin(eds), *Current Controversies in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7, pp. 265-292.
16. Dunning, John 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and Unwin, 1981.
17. Ferdows, K, "Making the Most of Foreign Factories," *Ha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7.
18. Hara, Masayuki, "Industrial Restructuring within the Firm: Diversification and Direct Investment, *Sekai Keizai Hyoron*, Vol. 33, No. 8, 1989.
19. Kotabe, Masaaki and Glenn Omura, "Sourcing Strategies of European and

- Japanese Multinationals : a Comparis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0, No. 1, 1989.
20. Kuemmer, W., "Building Effective R&D Capabilities Abroad,"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7.
 21. OECD,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Analytical Report*, 1996.
 22. OECD, *Globalization of Industry : Overview and Sector Reports*, 1996.
 23. Roman, Daniel D., and Joseph F. Puett JR., *International Busin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North-Holland, 1983.
 24. Singh, Ajit, "UK Industry and the World Economy: a Case of De-Industrializ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 pp. 113-136.
 25. Tain-jy Chen and Yi-Ping Ch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industrialization: the Case of Taiwan," *Journal of Industry Studies*, Vol. 2, No. 1, Aug. 1995.
 26. Tidd, J., Bessant J., and Pavitt K., *Managing Innovation-Integrating Technological, Market and Organizational Change*, John Wiley & Sons, 1997.
 27. Tilton, J. E., *International Diffusion of Technology: the Case of Semiconductors*, The Brooking Institution, 1971.
 2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Overview*, 1997.
 29.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